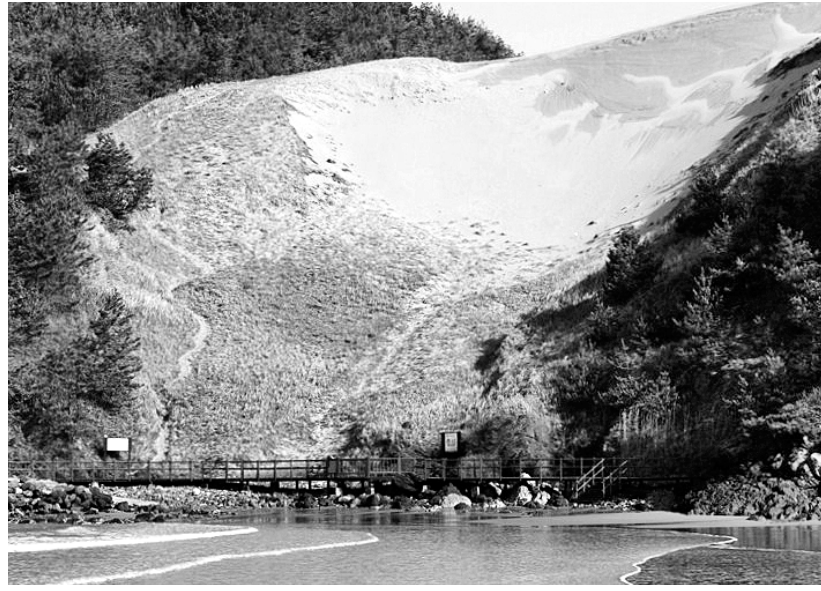




2007년 우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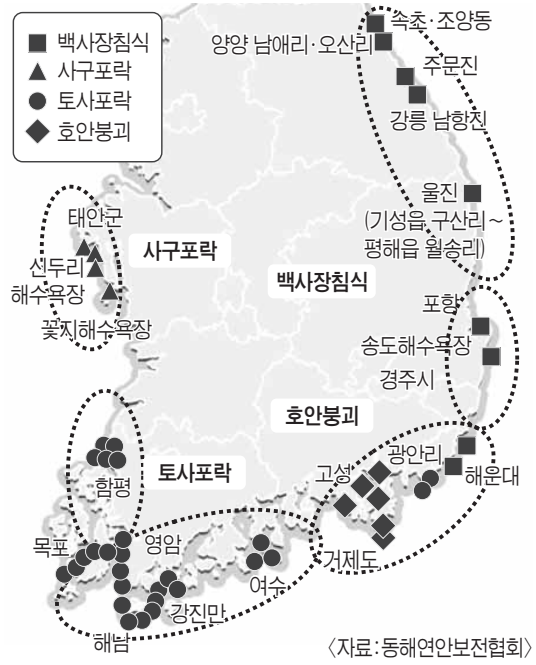


2013년 우이도

신안 우이도 사구 60% 이상 사라졌다

전남 연안침식으로 모래유실 심각
증도서 심포지엄... 대책 한목소리
"침식방지 공법·연구센터 모색을"

■ 연안 침식 주요지역



■ 우리나라 연안침식 유형

침식유형	동해안	남해안	서해안	계
백사장침식	20	10	5	35
사구포락	-	-	15	15
토사포락	3	52	37	92
호안붕괴	2	27	7	36
총계	25	89	34	178

전남 해안이 사라지고 있다. 전국에서 침식 우려 지역도 가장 많이 분포된 상황에서 속도와 침식 수준도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는 경고가 잇따르고 있다. 전문가들은 기후 변화, 해수면 상승 등 지구 온난화 현상과 함께 무분별한 바다 갈래 채취 등 인위적 침식도 한 몫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해안 침식 실태 심각=신안군이 최근 개최한 '연안 침식의 현황, 현재, 그리고 미래의 대응방안'이라는 주제로 열린 심포지엄에서 전남 해안 침식 사례가 소개됐다.

우전 해수욕장(길이 4km·폭 100m)의 경우 해안 침식으로 해변 폭이 갈수록 좁아지는가 하면, 해안가 모래가 해류를 타고 옮겨가면서 인근 쟁쟁이 해수욕장 모래층이 늘어나는 등 부작용도 빚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안 우이도 풍성 사구와 진도군 관매도 연안 침식 상황도 심각한 실정인 것으로 지적됐다.

전속진 다도해해상국립공원 서부사무소 주임은 '국립공원 연안침식 현황과 대응'이라는 자료를 통해 한때 축구장(8300㎡) 크기수준이던 사구가 현재 60% 이상 줄었다고 밝혔다. 1990년 초 직각에 가깝던 사구 경사도는 30도 수준으로 완만해진 상태다.

이 뿐만 아니다. 국토교통부가 내놓은 '2012년 국내 주요 백사장·사구 침식 모니터링' 자료에 따르면 전남의 침식 우려 지역(C등급)이 28곳에 달해 전국에서 가장 많다. 국토부는 침식으로 인해 백사장 및 배후지 재해 발생이 가능한 지역을 우려 지역으로 보고 있다.

게다가 국토부의 전체 조사 지점(41곳) 중 절반 이상에서 침식이 진행되고 있고 지난 2010년 15곳, 2011년 23곳에 이어 해마다 침식 우려 지역이 늘고 있는 상황이다. 전남 지역 해안 침식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다.

◇"더 이상 방치 말아야" 한목소리=신안군이 최근 개최한 '연안 침식의 현황, 현재, 그리고 미래의 대응방안'이라는 주제로 열린 심포지엄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사라져가는 전남 해변 보존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데 한목소리를 냈다.

전남의 경우 전국의 절반(46.1%)에 이르는 6475km

의 광활한 해안선을 미래의 지속 가능한 천혜의 해양관광 자원으로 활용해야 하는 만큼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당장, 우전해수욕장에 대해서는 해안 침식을 막기 위한 해안림 복원, 잠제(해안에 평행하게 설치돼 파도로 인한 침식을 막기 위한 구조물), 돌제 등 침식 방지 시설 설치 등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적지 않다.

우이도 사구의 경우 해당 사구 지역 식물 제거와 함께 더 이상의 훼손을 막기 위한 '순환 구조'를 을 조성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관매도 경관 보전을 위한 길이 50m·폭 6m에 이르는 해송 식재 사업 추진 방안도 제시됐다.

특히 연안 침식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게 중요하다는 점에서 전문 연구 기관으로서 연안 침식 방제센터 구축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한편, 전남도는 올해 연안 정비사업에 84억원을 투입했고 내년에도 102억 원을 들여 해송림 식재, 침식 방지 시설물 설치 등의 사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박정렬기자 halo@kwangju.co.kr

/신안=이상선기자 sslee@kwangju.co.kr

광주환경연합·푸른광주21협의회 '기후대기 개선 과제 방향' 토론회

광주환경운동연합과 푸른광주21협의회는 27일 오후 2시 광주시 서구 치평동 광주NGO센터 다목적강당에서 '광주 기후대기 개선 과제와 방향'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박승식 전남대 교수와 양철수 광주발전연구원 박사가 발표자로 나서 각각 '광주의 미세먼지 현황과 관리 대책', '대기오염 저감을 위한 교통부분의 역할과 과제' 등을 주제로 발표한다.

아울러 광주시 기후대기 개선을 위한 과제와 방향 등에 대한 토론회도 진행된다.

박정렬기자 halo@kwangju.co.kr

우체통에, 하수구에... 20개 정원 충장로에 활짝

(사)푸른길, '게릴라 가드닝' 진행

충장로 우체국 앞이 도심 작은 정원으로 변신했다. 고깔 모자를 쓴 크리스마스 트리 우체통이 자리를 잡는가 하면, 버려진 물병, 주전자도 꽃 화분으로 바뀌었다. 지난 22일 충장로 일대에 작은 도심 정원 20개 정원이 생겨났다.

«푸른길»이 '나는 마을과 도시의 정원사' 시민 가드닝 양성교육에 따라 추진한 '게릴라 가드닝' 프로젝트다. 이번 프로젝트는 '누가 내 정원을 옮겨줄까?'(WHO MOVED MY GARDEN?)라는 제목으로 회색 도시에 정원을 조성, 삭막한 도시를 바꾸자는 취지로 이뤄졌다.

이 프로젝트에 참여한 20여명의 '예비 가드너'들이 4명씩 한 팀을 꾸린 뒤 충장로 일대에 1평 남짓한 정원을 꾸렸다.

«푸른길» 관계자는 "하수구, 도로 블록과 같은 도시의 자투리 공간에 작은 정원 하나가 놓이면 그 자체만으로 도시 경관이 바뀌는 효과



를 얻을 수 있다"며 "사람들이 버려진 곳이라 생각하는 곳에서 새로운 가능성을 찾아내는 시도"라고 했다.

게릴라 가드닝은 1973년 미국 뉴욕에서 시민들이 중심이 돼 빈 공터를 정원으로 가꾸는 것이 그 시초다. 2004년, 한 영국 청년이 버려진 땅에 정원을 가꾸고 개인 블로그에 소개해 세계적으로 확산됐다.

박정렬기자 halo@kwangju.co.kr

광양항 인근 항해위험물 9곳 추가 발견

해양조사원, 장애물 8개소·암초 1개소

광양항에서 암초와 장애물 9곳이 추가로 발견됐다.

광양항 인근 해역은 과거에 비해 수심이 낮아진 데다, 추가로 장애물까지 발견돼 원유나 석유화학제품 운송 선박과 어업 관계자들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국립해양조사원 남해해양조사사무소는 광양항에서 장애물 8개소, 암초 1개소 등 항해위험물 9개소를 발견했다고 27일 밝혔다.

광양항(선원회관) 남서쪽 1.4km지점(34-52-57.8 N, 127-40-15.8E)의 경우 최근 조사 결과, 수심이

기준에 알려졌던 3.9m보다 3.3m나 낮아진 0.6m에 불과했다. 길이 80m, 폭 0.7m 가량의 오락방지막(준설, 돌적재 공사 등에서 발생하는 부유물질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설치하는 방지막)이 바다에 가라앉아 있었기 때문이다.

또 인근 묘도 서쪽 6km 지점(34-53-02.4N, 127-37-33.5E)도 0.4m 가량 수심이 낮아졌고 공사 과정 중에 버려진 가로 세로 3m 가량의 시멘트 블록이 발견됐다.

국립해양조사원 관계자는 "해도에 명시된 곳보다 수심이 낮아진 곳이 많다"면서 "달라진 해저 정보를 어업 관계자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정렬기자 halo@kwangju.co.kr

중소기업 환경오염방지물품 관세감면 2년 연장

올해로 종료되는 '환경오염방지물품 관세감면' 제도가 중소기업에 한해 2년 연장된다.

기획재정부는 '환경오염방지물품 관세감면'의 일몰기한을 연장하고 '공장자동화물품 관세감면'의 대상품목을 조정하는 내용의 '관세법 시행규칙'과, '신·재생에너지 기자재 관세감면' 대상품목을 조정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해 입법예고한다고 26일 밝혔다.

환경오염방지물품 관세감면 제도란 오염물질이나 산업폐기물을 처리하는 데 필요한 여과기·가스청정기·분사펌프·배기온도센서·엔진제어장치 등 관련 물품의 관세를 30% 깎아주는 제도다.

또, 기획재정부는 중소 제조업체의 인건비를 절감과 생산성 향상을 위해 '공장자동화물품' 관세감

면율을 11월부터 내년 3월31일까지 한시적으로 현행 30%에서 50%로 확대해 시행하는 한편, 56개 품목 가운데 사용량이 적은 건조기·광택기·분쇄기 등 17개 품목은 제외하고, 열처리장치·마찰용접기·백와싱머신 등 5개 품목은 새로 추가해 총 44개로 조정할 계획이다.

신·재생에너지 기자재 관세감면 대상품목도 84개 품목 중 드릴링머신·폴리싱머신·MO코팅기 등 19개 품목은 제외하고, 유압동력장치·유리캡 등 6개 품목은 새로 추가해 모두 71개로 조정한다.

이번 개정안은 입법예고를 거쳐 12월 중 공포돼 내년 1월1일 이후 수입신고분부터 적용된다.

박정렬기자 halo@kwangju.co.kr

수기동 제일오피스텔, 사정상 매매

14평 OP, 1세대

- 16층, 주거겸 사무실
- 전망좋은, 무등산 쪽
- 시세, 5000만원 정도
- 급매, 3300만원

29평 OP, 2세대

- 10층, 12층, 주거겸 사무실
- 로얄층, 하천쪽
- 시세, 1억원 정도
- 급매, 6500만원

53평 사무실, 1세대

- 9층, 사무실 전용
- 전망좋은, 코너(창가)
- 시세, 2억원 정도
- 급매, 1억3500만원

77평 사무실, 1세대

- 20층, 사무실 전용
- 최상층, 전체 올수리
- 시세, 4억원 정도
- 급매, 2억7천만원

수익성 좋은 1층 상가, 25평

- 오피스텔 정문 코너
- 현재, CU편의점 임대중(보3천만원에 월125만원)
- 법인체로 양도 양수 할 경우 이전비 없음
- 시세, 2억5천만원 정도
- 급매, 1억7500만원

주인이 직접 매매 합니다.
H. 010-3605-5000